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4명, 친구/지인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하다!

'친교'를 뜻하는 코이노니아란 용어를 대부분 한 번쯤은 접했을 것이다.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인 사람들 즉 '성도 간의 영적 교제와 참여'를 의미하며, 이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교제(나눔, 친교)가 없는 교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일반적 친교는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교회의 친교 수준이 얼마나 건강하고, 실질적이며, '사랑의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친교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한국교회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교회의 주요 5가지 영역을 들여다보는 시리즈를 기획하여 그 첫 번째로 예배 실태와 당면 과제 등을 분석하여 지난 264호에서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두 번째로 '기독교인의 친교'에 관해 다룬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이뤄지는 친교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 진단 및 적절한 처방 제시를 통해 친교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랑과 연합으로까지 나아가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친교' 실태 조사

조사개요

구분	기독교인	담임목사
조사 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교회 출석자)	전국의 담임목사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 발송)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총 506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비례할당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담임목사의 경우 교회규모별 가중치 적용)	
조사 기간	2023년 11월 7일 ~ 11월 15일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1월 2일
조사 의뢰 기관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신앙 성숙과 사랑을 위한 친교] 성도 10명 중 4명, 친구/지인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하다

- 성도들에게 주변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을 묻은 결과,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가 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친구 및 선후배'(32%), '사회적 모임에 있는 사람'(13%), '직장 사람'(6%) 등의 순이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보다도 같은 교회 성도에게 더 높은 친밀감을 느낀다는 점이 눈에 띈다.
-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가 가장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앙 수준과 비례해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주변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 (교회 출석 기독교인, 상위 4위, %)



[그림]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를 가장 친밀감 느끼는 자로 응답한 비율 (신앙단계별, 교회 출석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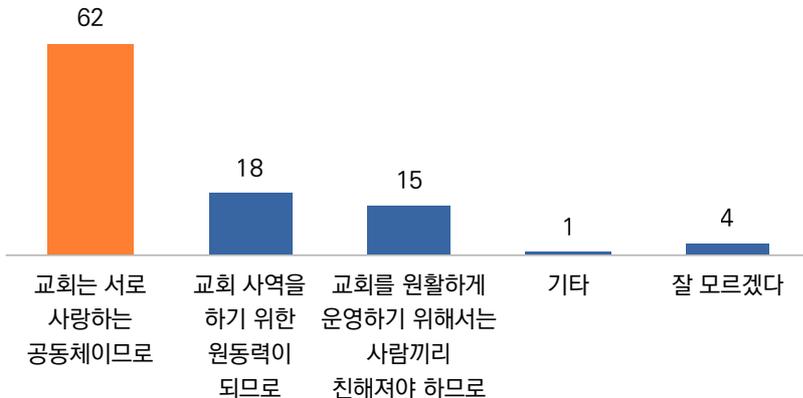
Note) 신앙단계별 설명

-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교회에서 친교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므로'!

- 이번에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친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므로'(62%)를 가장 높게 꼽았고,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한 원동력이 되므로'(18%)나 '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끼리 친해져야 하므로'(15%) 등 교제를 교회 사역·운영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생각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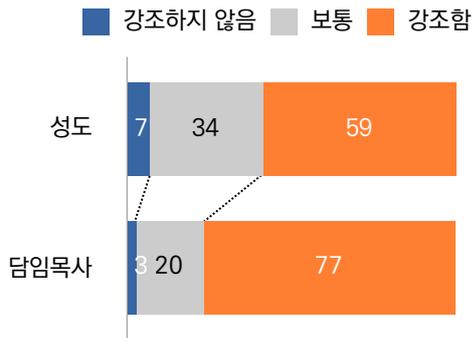
[그림] 교회에서 친교/교제해야 하는 이유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설교에서 성도 간의 친교 ‘강조한다’, 성도 59% vs 담임목사 77%로 인식 차이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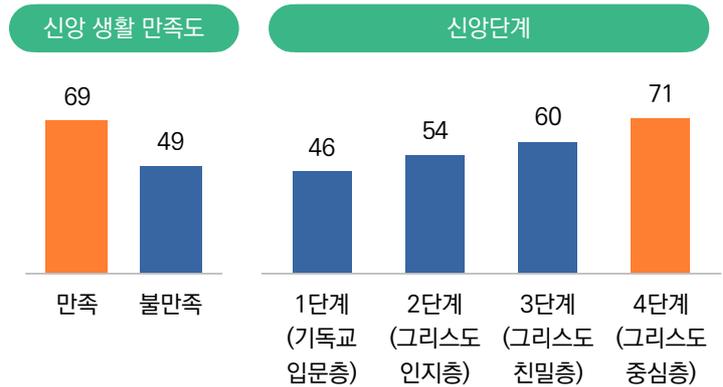
- 담임목사는 설교에서 성도 간의 친교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을까? 성도의 경우 절반 남짓인 59%가 ‘강조한다’고 응답했으나 목회자(담임목사)는 이보다 18%p나 높은 77%가 강조한다고 응답해 두 그룹 간 큰 격차를 보였다. 목회자가 설교에서 친교를 강조하는 것만큼 성도들에게는 잘 전달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 설교에서 친교를 강조한다고 느끼는 비율은 신앙 생활 만족도와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져 ‘신앙의 성숙’ 요인이 성도 간의 친교를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림] 담임목사 설교에서 ‘친교/교제 강조’ 여부*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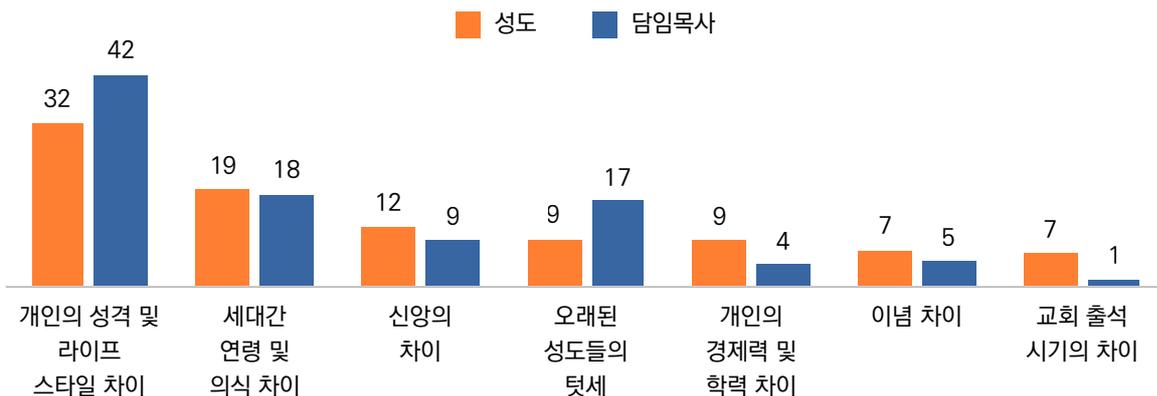
[그림] 성도 특성별 ‘설교에서 친교/교제 강조함’ 비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성도 간 진정한 친교를 위해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 극복해야

- 진정한 친교/교제를 가로막는 요인을 성도와 담임목사에게 각각 물었다. 성도와 목회자 모두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를 1위로 꼽았고, 2위도 ‘세대 간 연령 및 의식 차이’로 동일했다. 교회는 세상처럼 개인의 취향, 동질성, 나의 편안함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님을 인식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해 보인다.

[그림] 진정한 친교/교제 가로막는 요인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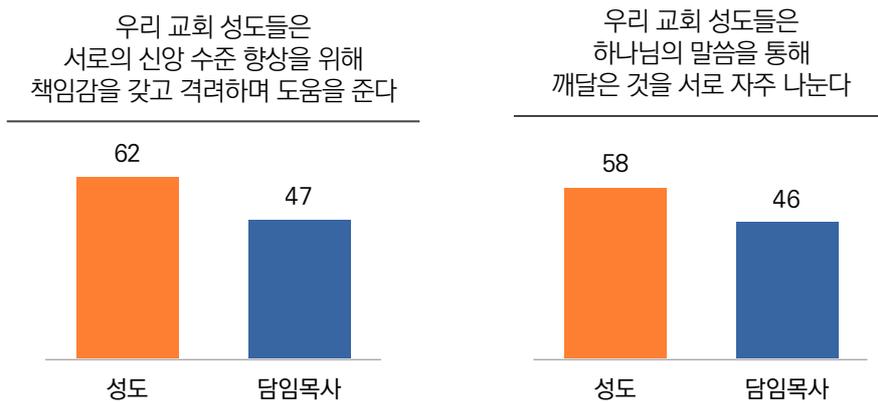
02

[신앙적 대화와 실질적 친교]

목회자들은 성도에 비해 '성도 간 신앙적 격려와 말씀 나눔'이 부족하다고 느껴

- 성도 간의 신앙적 대화에 관한 성도와 목회자의 인식을 살펴본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신앙 수준 향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격려하며 도움을 준다'에 성도 10명 중 6명(62%)이, 목회자는 절반가량(47%)이 동의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서로 자주 나눈다'는 성도 58%, 목회자 46%가 동의해 앞선 항목과 같이 담임목사의 응답률이 성도에 비해 10%p 이상 낮았다.
- 성도 간 신앙적 나눔에 대해 성도보다는 목회자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더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성도 간의 신앙적 나눔 평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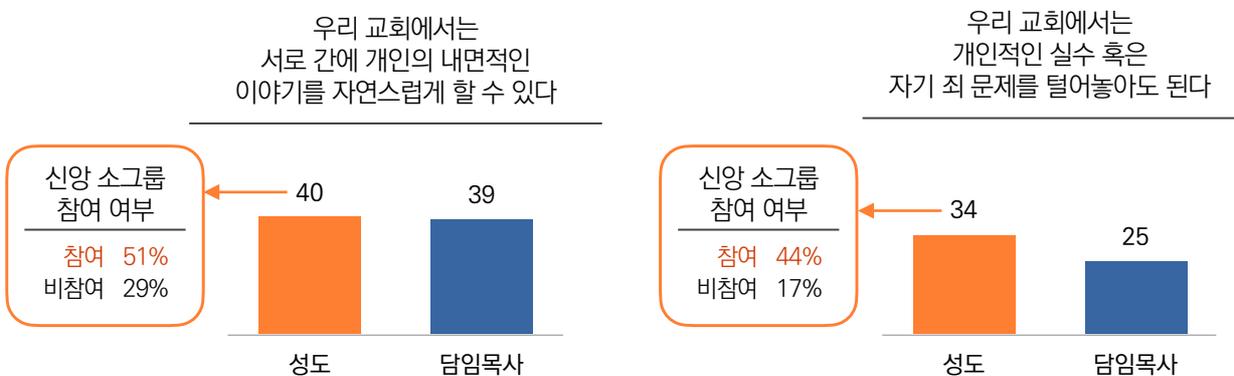


*5점 척도

신앙 소그룹 참여자, 비참여자보다 '성도 간 깊이 있는 대화' 훨씬 더 한다!

- 성도 간 개인적 대화의 수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개인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에는 성도의 40%, 담임목사 3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실수 혹은 자기 죄 문제를 털어놓아도 된다'에 대한 동의율은 성도와 목회자 각각 34%, 25%였다. 전반적으로 성도들 간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깊은 내면적 문제 더 나아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 다만 신앙 소그룹 참여자의 경우 비참여자 그룹 대비 '깊이 있는 대화'(개인의 내면적 이야기, 실수 혹은 죄 문제)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높아 주목된다.

[그림] 성도 간의 개인적 대화의 깊이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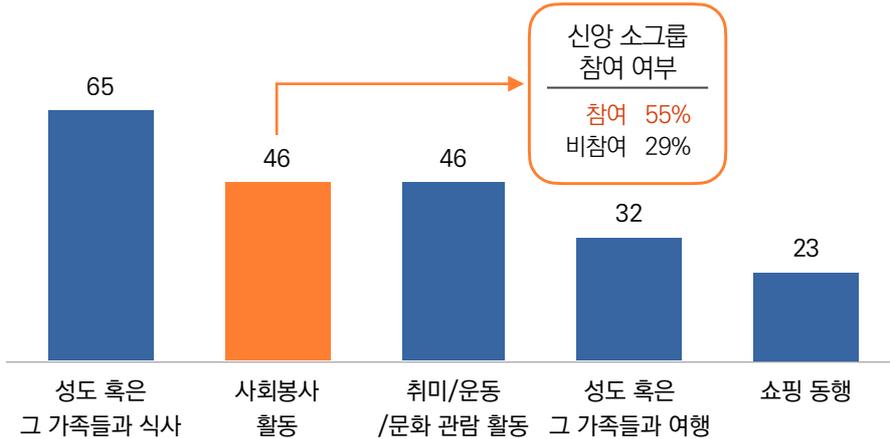


*5점 척도

성도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교제의 장으로 활용!

- 일반적인 신앙 활동 외 성도들 간에는 어떤 교제 활동을 하고 있을까? 성도들과의 교제 활동으로 '성도 혹은 그 가족들과 식사'(65%)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봉사 활동'(46%), '취미/운동/문화 관람 활동'(46%) 등이 뒤를 이었다.
- 성도들이 '사회봉사 활동'을 교제의 장으로 활용하는 점이 눈에 띄는데 지역사회를 섬기고, 단순한 친교를 넘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실현하고 확장하는 일이기에 더욱 독려할 필요가 있겠다.
- '사회봉사 활동' 참여는 신앙 소그룹 참여자가 비참여자 대비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경향을 보였다.

[그림] 성도들과의 교제 활동 (교회 출석 기독교인, '자주+가끔 있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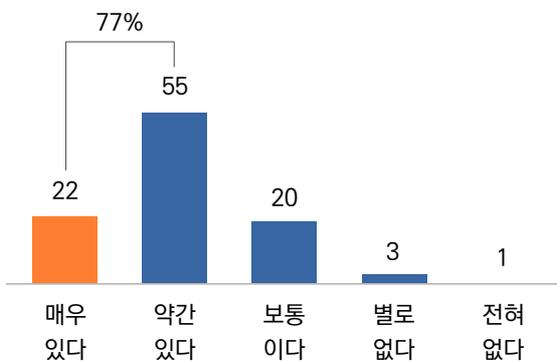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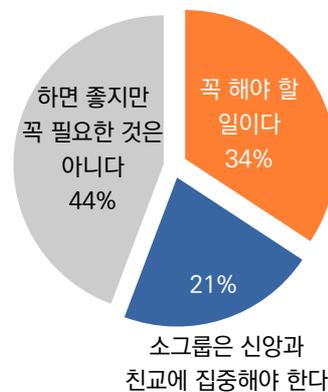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의 경우 사회봉사 의향 높지만, 목회자는 부정적!

-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에게는 '신앙 소그룹에서 사회봉사를 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목회자(담임목사)에게 '신앙 소그룹에서 사회봉사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의 경우 '참여 의사 있음'(매우+약간) 비율이 77%였으나, 목회자는 '꼭 해야 할 일'(34%)이 라기보다는 '하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44%)는 소극적 의견과 '소그룹은 신앙과 친교에 집중해야 한다'(21%)는 소그룹의 사회봉사 참여에 회의적인 의견이 더 높았다.

[그림] 신앙 소그룹에서 사회봉사 참여 의향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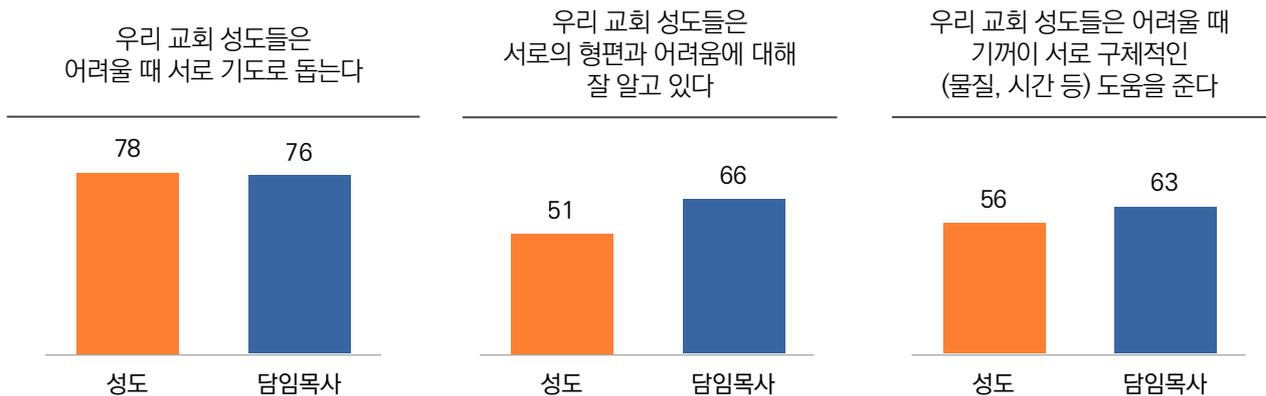
[그림] 신앙 소그룹의 사회봉사 활동 필요성 (담임목사)



성도 간 기도로는 돕지만 구체적 도움을 주는 데까지는 역부족!

- 이번에는 교회 내 성도의 실제적 친교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성도 간의 도움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성도와 목회자 4명 중 3명 이상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울 때 서로 기도로 돕는다'에 동의해 중보 기도를 통한 성도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 한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와 '어려울 때 기꺼이 서로 물질, 시간 등 구체적인 도움을 준다'에 대해 목회자는 각각 66%, 63%의 동의율을 보인 반면 성도는 50%대로 목회자 그룹 대비 긍정률이 낮게 나타났다. 성도보다 목회자의 긍정적 평가가 더 높다는 것은 성도들의 실제적 필요에 대한 담임목사의 관심 및 민감성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림] 성도 간의 도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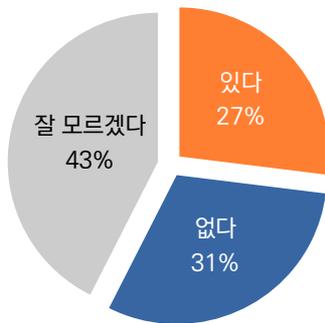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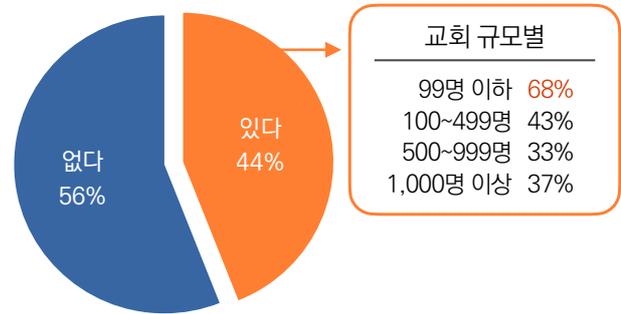
교회의 경제적 지원 제도 여부, 성도의 절반 가까이(43%) 잘 몰라!

-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지 성도들에게 묻은 결과, '있다' 27%, '없다' 31%, '잘 모르겠다'는 43%로 이런 경제적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적 지원 제도가 있는 교회 성도'에게 다시 실제 도움 요청 의향을 물었더니 절반 가까운 성도(44%)이 '있다'고 응답해 주목된다.
- '경제적 도움 요청 의향'은 교회규모별로 보면 '99명 이하'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의 지원 제도 존재 여부 (교회 출석 기독교인)



[그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에 도움을 요청할 의향 ('경제적 지원 제도 있는 교회' 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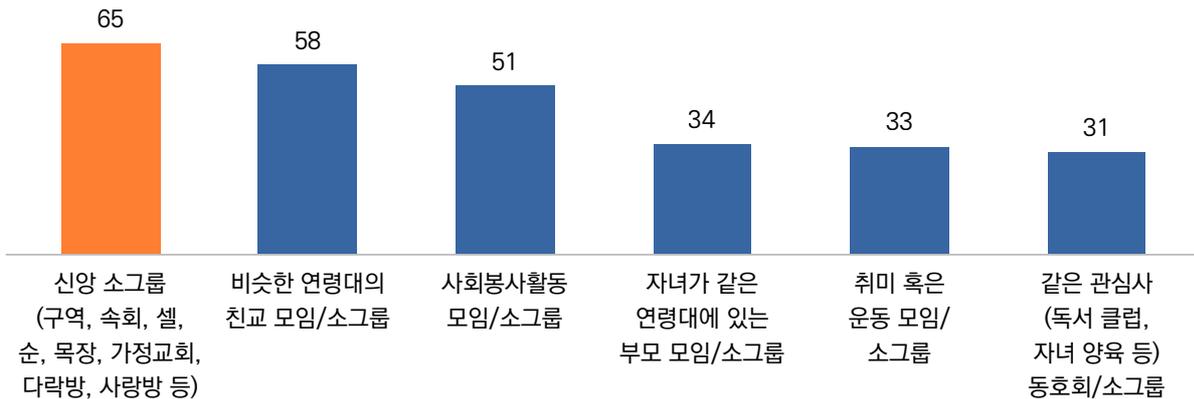


03

[진정한 친교의 장_신앙 소그룹] 교회 내 교제가 가장 활성화된 소그룹은 '신앙 소그룹'!

- 교회의 다양한 소그룹 중 어떤 소그룹에 속해서 활동하는지를 물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소그룹은 '신앙 소그룹'(65%)이었고, 다음으로 '비슷한 연령대의 친교 모임'(58%), '사회봉사 활동 모임'(51%) 등의 순이었다.
- 다만 취향 소모임(취미, 같은 관심사 등)의 참여율은 30%대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그림] 참여 소그룹 (소그룹 있는 교회 성도, '정기적+가끔 참석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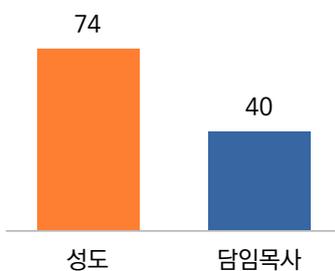


*4점 척도

소그룹 리더 만족도, 담임목사보다 소그룹 구성원이 훨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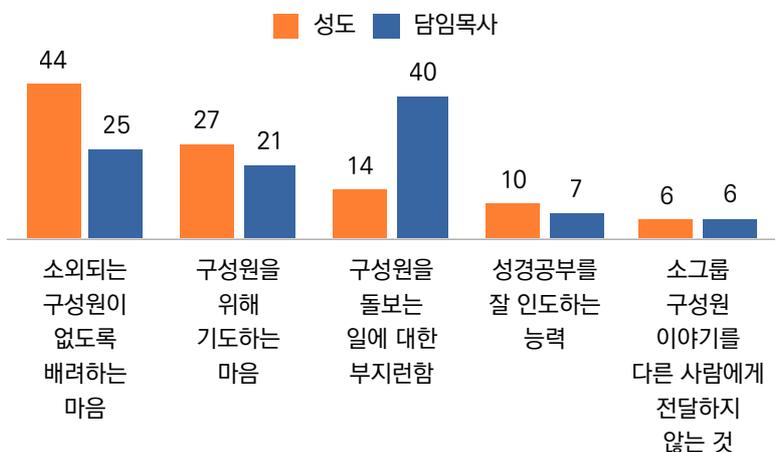
- 소그룹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신앙 소그룹 구성원들과 신앙 소그룹 운영하는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신앙 소그룹의 리더 만족도를 묻은 결과, 소그룹 구성원인 성도는 4명 중 3명(74%)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목회자의 만족도는 40%로 소그룹 구성원의 리더 만족도가 담임목사 대비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신앙 소그룹 리더의 자격은 무엇일까? 소그룹 구성원은 '소외되는 구성원이 없도록 배려하는 마음'(44%)을 가장 중요하게 꼽았으나, 목회자는 '구성원을 돌보는 일에 대한 부지런함'(40%)을 1순위로 꼽아 두 그룹 간 기대하는 리더십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다.

[그림] 신앙 소그룹 리더 만족도 (신앙 소그룹 구성원/목회자, '매우+약간 만족한다' 비율*, %)



*5점 척도

[그림] 신앙 소그룹 리더의 자격 (각각 신앙 소그룹 구성원/목회자, %)



잘 운영되는 소그룹의 주 활동 내용, '삶의 나눔'!

- '신앙 소그룹'은 어떤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걸까? '일반적인 목적',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적' 그리고 '소그룹에서 잘 이루어지는 내용'을 각각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에게 물었다.
- 신앙 소그룹의 일반적 목적으로는 '신앙 양육과 성숙'과 '사랑의 공동체 형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소그룹에서 잘 운영되는 내용은 '삶의 나눔'이 가장 높았는데 소그룹을 통해 관계적 친밀감 형성이 이루어짐을 엿볼 수 있었다.

[표] 신앙 소그룹 목적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 상위 3위)

	일반적인 목적	교회에서 강조하는 목적
1	신앙 양육과 성숙 36%	사랑의 공동체 형성 36%
2	사랑의 공동체 형성 34%	신앙 양육과 성숙 33%
3	삶의 나눔 18%	삶의 나눔 16%

[표] 신앙 소그룹 내용 (신앙 소그룹 참여 성도, 상위 3위)

	잘 운영되는 소그룹 내용
1	삶의 나눔 37%
2	사랑의 공동체 형성 31%
3	신앙 양육과 성숙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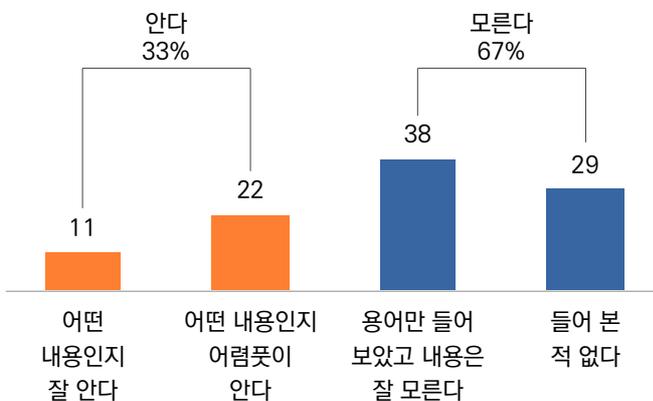
04

[친교의 확장_공교회]

한국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 중요하다', 성도 절반도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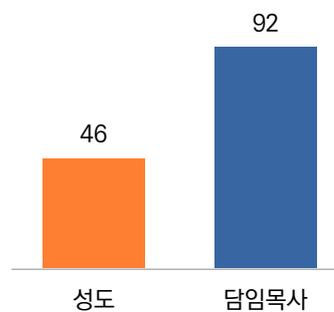
- 성도들에게 '공교회'란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안다' 33%, '모른다' 67%로 성도 3명 중 2명은 공교회라는 말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다'(잘+어렵듯이 안다)는 응답에서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안다'는 응답은 11%에 그쳐 사실상 '공교회'를 제대로 아는 성도는 소수에 불과했다.
- 공교회 개념을 설명하고, 이런 공교회적 역할이 한국 교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성도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치는(46%) 반면 목회자는 대다수(92%)가 중요하다고 응답해 공교회의 중요성 인식에 있어 큰 온도 차이를 보였다.

[그림] 공교회 용어 인지율 (교회 출석 기독교인, %)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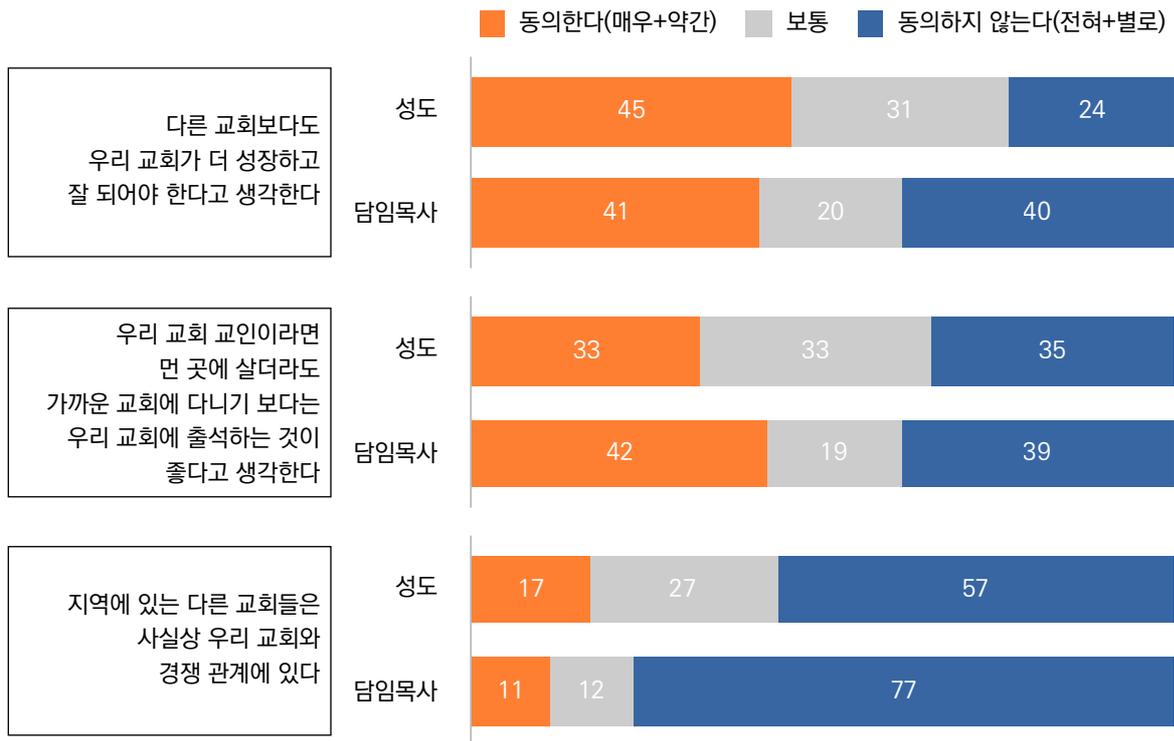
[그림]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의 중요성 ('매우+약간 중요하다' 비율*, %)



담임목사 42%, 먼 곳에 사는 성도도 가까운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택하면 좋겠다!

- 성도와 목회자의 공교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몇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응답을 받았다.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에는 성도의 45%, 목회자도 41%가 동의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라면 먼 곳에 살더라도 가까운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에는 성도 3명 중 1명꼴로 동의했고, 목회자는 이보다 더 높은 4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에서 개교회주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사실상 우리 교회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성도 17%, 목회자 11%로 두 그룹 모두 이웃 교회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림] 공교회에 대한 인식 (%)



이번호 요약

1. 한국교회 성도 10명 중 4명, 친구/지인보다 '우리 교회 성도'가 더 친밀해

- 성도들에게 주변에서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을 묻은 결과,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가 38%로 가장 높았고, '출석 교회 성도/목회자'가 가장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앙 수준과 비례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 성도들은 '사회봉사 활동'을 교제의 장으로 활용!

- 성도들과의 교제 활동으로 '사회봉사 활동'(46%)이 '성도 혹은 그 가족들과 식사'(65%, 1위)의 뒤를 이어 2위였는데 그만큼 사회봉사 활동을 성도들이 교제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교회 내 교제가 가장 활성화된 소그룹은 '신앙 소그룹'!

- 소그룹이 있는 교회 성도들은 취미 소그룹 등 다른 모임보다 '신앙 소그룹'(65%)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앙 소그룹 참여자는 비참여자 대비 '성도 간 깊이 있는 대화'에도, '사회봉사 활동'에도 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기사] “초대교회 4가지 축, 사도들의 가르침·친교·빵을 떼는 일·기도” (기독일보)
- ▶ [도서] 성도의 교제 (본회퍼, 대한기독교서회)

관련 성경 구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목회 적용점

교회에서 친교를 통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진정한 친교 공동체, 영성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교회는 어떤 발걸음을 떼야 할까?

우선 개인의 차이를 넘어서는 성도 간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진정한 친교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 및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가장 높게 응답됐는데 개인의 취향과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이 추구하는 논리이다. 성도는 재산, 학력, 성별, 나이 등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차이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렇다면 서로 간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가치 추구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이지만 '서로 간 이해'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에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예배 측면에서는 세대통합예배를 통해 연합을 도모할 수 있고, 관계(교제) 측면에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섞여 활동하는 사역 모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역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할 수 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 모두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교회에서 가장 교제가 활성화된 모임이 '신앙 소그룹'인데 진정한 친교를 위해서는 신앙 소그룹의 역할과 건강성 유지가 요구된다. 교회 안 교회(Church in church)인 소그룹이 그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그룹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모임 빈도를 자주하고, 모임 시간도 늘려야 한다. 최근 주일 오후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소그룹 모임 시간을 한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소그룹에서 교회 얘기, 남 얘기,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내지 않고 서로 간 삶을 진정성 있게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 중요하다.